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8월호

제336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 라 00007
발행인 박명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1등급’ 획득 종합병원 중 ‘호남권 1위’, ‘전국 11위’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30일에 발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역의 든든한 의료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리 병원이 획득한 점수는 92.42점으로, 전국 종합병원 중 11위, 호남권 종합병원 중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체 종합병원 평균인 85.39점을 크게 웃도는 최상위권 성적이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고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 아래 올해 처음으로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평가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평가 영역은 ●병원 환경과 환자 안전 ●투약 및 치료 과정 ●정서적 지지 ●의사·간호사 영역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이며, 우리 병원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입원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인에게 추천 여부를 묻는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94.14점을 획득하였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들이 직접 의료진과의 소통, 병원 환경, 치료 과정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결과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안전한 치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온 결실로, 이는 의료사업을 통해 예수성심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병원의 고유한 이념을 현장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이기도 하다. 박명옥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호남 최고의 병원’이라는 우리 병원의 비전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성과다.”라는 말에 이어 “설문 응답을 통해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주신 지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회 연속 지정



7월 15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4회 연속 지정되었다. 우리 병원은 최근 3년간 중증 환자 비율이 81.9%에서 89.6%로 상승했으며, 외부에서 전원 온 환자(연간 3,629명→6,041명)는 크게 늘고 타 기관으로의 전원(1,409명→652명)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미수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를 위한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 안전망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 심장·대동맥 수술 1,500례 달성 기념

꺼지지 않는 수술실 불빛이 지역민의 심장을 지킵니다

최근 우리 병원은 심장·대동맥 수술 1,500례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호남권 2차 병원 중 유일하게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온 심장혈관흉부외과 오정우 과장을 만나 수술실에서 마주했던 생명의 무게와 그 철학을 들어보았다.

먼저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장·대동맥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심장과 대동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대동맥은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죠.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바로 심장과 대동맥 질환입니다.

통상적으로 심장·대동맥 수술은 대학병원급에서만 가능한 초고난도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장·대동맥 수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우선 협착되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관상동맥우회술과 대동맥판이나 승모판, 삼첨판 같은 판막 치환술, 그리고 판막을 재건하는 판막 성형술이 있고요, 1분 1초가 생사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대동맥 수술, 그 외 심장종양 절제술이나 심장 파열 봉합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다른 지역에서 헬기로 이송되어 오는 환자를 수술하기도 하시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동맥 질환과 같은 경우 초응급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대응 가능한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결정짓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넘어오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마주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헬기가 착륙하는 즉시 수술실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수술실, 마취과 의료진 분들 덕분에 지체된 시간을 그나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환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동맥 수술은 반드시 오정우 과장님과 오상기 과장님이 함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분의 호흡은 어떠신가요?



심장혈관흉부외과 오정우 과장

대동맥 수술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수술입니다. 8시간, 10시간씩 이어지는 장시간 수술이기도 해서 집도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상기 과장님과 제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면 한 명이 수술의 전체적인 진행을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이 혈관 연결이나 지혈 등을 보조하면서 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상기 과장님을 믿고 수술할 수 있고 과장님도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수술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생활 수칙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압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대동맥 질환은 고혈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평소 혈압이 얼마인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혈압은 심혈관 건강의 성적표입니다. 하루 한 번 자신의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좋은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아주 강렬한 통증, 특히 가슴이나 배에서 느껴지는 낯선 통증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으시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문의 초대석

흥미로운 혈관 수술의 역사 그리고 미래 (1)

현대 의학에서 혈관 수술은 확대경을 이용해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로 찢어진 혈관을 꿰매거나, 정교한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정밀과학의 영역입니다. 반면 마취법과 소독 개념이 없었던 고대와 중세 시대, 혈관 수술은 환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출혈 부위를 불로 지지는 방법 외에 할 것이 없었던 의사에게는 좌절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인류가 좌절과 공포를 극복하고 혈관 수술을 가능케 한 역사적 과정은 한 편의 생존 드라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금기에서 로마 장군의 비명까지

인류가 혈관의 이상을 인지한 최초의 질환은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는 '하지정맥류'였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의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하지정맥류를 '공기가 찬 구불구불한 매듭'으로 묘사하고 있고 당시의 처방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이었습니다. 선불리 칼을 대었다가 발생하는 대량 출혈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기에 처음으로 도전한 이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그는 정맥류 치료를 위해 다리를 압박하거나 의도적으로 혈관에 상처를 내 혈전을 유도하는 초기 형태의 천공술을 시도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혈관 수술은 더 과감해졌지만 잔혹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영웅 가이우스 마리우스 장군은 마취 없이 생살을 찢고 다리 정맥을 뽑아내는 수술(하지정맥류수술)을 받았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한쪽 다리 수술의 극심한 통증을 견뎌 후, "치료법이 고통보다 못하다"며 나머지 다리 수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 갈레노스 같은 의학자들은 출혈을 막기 위해 혈관을 묶거나 인두로 지지는 원시적인 지혈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 '이발소 의사'와 공포의 끓는 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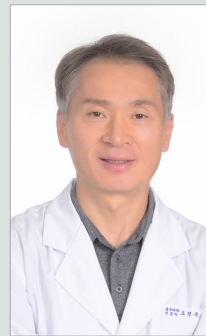
중세에 접어들며 의학은 외려 퇴보의 길을 걷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인체 해부가 엄격히 금지되면서, 수술은 대학의 의사가 아닌 칼을 다룰 줄 알던 '이발소 의사(Barber-Surgeon)'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학을 지배한 것은 인체의 네 가지 체액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체액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세의 혈관 치료는 역설적이게도 병을 고치기 위해 환자의 혈관을 열어 피를 뽑아내는 '사혈(Bloodletting)' 요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당시 전쟁터에서 부상병의 대량 출혈을 막는 방법은 야만에 가까



그림 1. 중세 전쟁터에서 지혈을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상처를 지지는 장면

웠습니다. 부상병의 사지가 절단되면 이발소 의사들은 출혈을 잡기 위해 펄펄 끓는 기름을 상처에 들이붓거나, 빨강계 달걀 달팽이 모양의 인두



심장혈관흉부외과
오정우 과장
약력
전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전남대학교병원 수련
흉부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국립목포병원 흉부외과 과장
상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미래로2병원 흉부외과 과장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과장
현재 상가롤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전문분야: 말초동맥질환, 정맥질환(하지정맥류), 동정맥루조성수술, 흉부외상, 손다한증

로 혈관을 지지는 '소작술'을 감행했습니다.(그림 1)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쇼크사 위험에 노출되었고, 살아남더라도 주변 조직이 괴사해 2차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혈을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 환자에게 더 큰 재앙이 된 외상치료의 암흑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앙브루아즈 파레, 인류를 소작의 고통에서 구하다

이 잔혹한 치료법에 중지부를 찍은 인물이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군의관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입니다. 종군 의사였던 그는 지혈을 위한 끓는 기름이 부족해지자, 고육지책으로 달걀노른자와 장미유를 섞은 고약을 부상병들의 상처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름으로 지진 병사들은 고열과 염증으로 신음한 반면, 고약을 바른 병사들은 통증이 덜하고 상처가 아문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파레는 끔찍한 소작법을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고대 로마의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손상된 혈관을 직접 바늘과 실로 묶는 '혈관 결찰술'을 현장에 도입했습니다.(그림 2) 이후 절단 수술의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현대적인 혈관 외과 수술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림 2. 부상당한 병사의 발에 혈관 결찰술을 시행하는 장면

알렉시 카렐, 현대적 혈관 수술의 서막을 열다

손상된 혈관을 직접 꿰매는 진정한 혈관 수술의 서막을 연 이는 프랑스 출신의 의사 알렉시 카렐(Alexis Carrel)입니다. 1894년 프랑스 대통령 사디 카르노가 괴한의 칼에 찔려 문맥(간으로 가는 큰 혈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병원에 이송된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내농이라는 외과 의사들이 모여 지혈 수술을 시도했으나 손상된 혈관을 봉합할 수 없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수술 과정을 참관했던 젊은 의사 카렐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후 혈관 봉합술의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자수 장인 마담 틀르와(Madame Leroudier)를 찾아간 카렐은 그에게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 바느질 기술을 배웠고, 실에 인간의 지방을 코팅해 마찰을 줄여 혈관을 봉합할 때 거친 실의 표면 때문에 혈관이 손상 받는 것을 줄이는 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리고 혈관 끝을 세 군데로 잡아당겨 팽팽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뒤 꿰매는 '삼각 봉합법'을 창안했습니다.(그림 3) 이 기술로 비로소 제대로 된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거머쥐며 근대 혈관 수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월호에서 현대의 혈관 치료법이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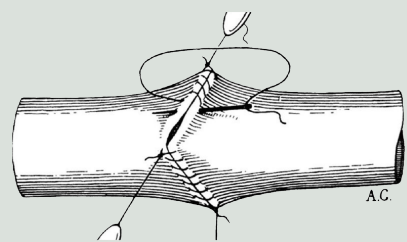


그림 3. 카렐이 고안한 삼각봉합법



베타메타손

베타메타손은 합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항염증, 항소양성, 혈관수축 작용을 하는 일명 스테로이드 약물이다. 아토피피부염, 접촉피부염, 지루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크림, 연고, 겔 제형의 제품이 있고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주사제, 정제 제형의 제품이 있다.

효능 · 효과 및 약리작용

베타메타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피부과 등에서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주로 알레르기 질환, 관절염 및 그 외 여러 염증성 질환 및 벌레 물린 곳, 화상 등에도 사용된다.

부신피질호르몬으로 염증 물질(키닌, 히스타민, 리소좀 효소, 프로스타글란딘)의 형성, 방출, 활성을 억제한다. 특히 바르는 외용제의 경우,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데 그 정도에 따른 베타메타손의 등급은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온염산염 0.05%가 class2로 정도가 강하고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가 class4로 중간 정도의 강도이다.

용량 및 용법

주사제, 정제, 액제는 베타메타손 단일제로 사용되며, 크림, 연고, 겔제 등 외용제는 베타메타손에 항생제 등을 복합한 복합제로 사용되며, 1일 2회 필요한 부위에 도포한다.

- 원내 외용제: 겐트리손 연고(베타메타손+클로트리마졸+겐타마이신 복합제)
 - 원외 외용제: 다이보베트 연고, 칼시베타겔 (칼시포트리올+베타메타손 복합제)
- 정제는 초기용량 투여 후 증상 경과에 따라 점차 감량하여 최소 유효량을 유지용량으로 한다. 주사제는 질환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정맥, 근육, 관



절강, 연조직, 결막하, 척수강, 흉강, 난관 내에 주사한다.

- 원내 주사제: 베타메타손 주사

금기

-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신 진균 감염 자에서는 베타메타손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주의 사항

<주사제, 정제>

- 위점막을 자극하므로 음주를 피한다.
- 칼슘 흡수를 저해하므로 칼슘 대사장애 환자는 주의한다.
- 전신 치료 시 혈압, 혈당, 전해질, 정신 상태를 살펴본다.
- 장기간 치료 시, 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검사, 안과 검사를 하고 소아 환자는 성장 속도를 살펴본다.

<외용제>

- 투여 후 손을 반드시 씻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얼굴, 서혜부, 겨드랑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약물을 피부에 바른 뒤 봉대로 감지 않는다.
- 개봉 후 12개월이 지나면 폐기한다.
- 장기간 고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소아는 흡수가 잘 되어 전신적 독성이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한다.

출처: 약학정보원 | 약제팀 신유리 약사

“지난 1년의 빛나는 노력,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신규 간호사 돌잔치 개최



7월 9일 별관 성심홀에서 2025년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 76명을 위한 뜻깊은 돌잔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박명옥 병원장의 축사와 박순영 간호부장의 격려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지난 1년간 간호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첫돌을 맞이한 간호사들의 모습과, 선배·동료들의 따뜻한 응원이 담긴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며 그간의 노고와 추억을 되돌아보았다. 이어진 ‘나의 다짐’ 낭독 순서에서는 한수정, 박상언 간호사가 대표로 나와서 앞으로의 성장을 다짐하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축하 케이크 커팅



과 병원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행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간호교육팀이 마련한 포토존에서 동기, 선배들과 밝은 미소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박순영 간호부장은 “간호부와 선배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간호사로서의 여정이 더욱 빛나고 행복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치열했던 첫 1년을 무사히 지나 이제 어엿한 2년차로 발돋움한 76명 간호사들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한다. - 간호교육팀 이주연 팀장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내 강력한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병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전 부서에 재공지하고, 간호부 내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7월 1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인력인권지원센터 김민숙 강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한 직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물론 동료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인식했다. 아울러 유사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예방책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 병원도 앞으로도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상호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간호교육팀 이주연 팀장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우리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30일에 발표한 제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26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이다. 우리 병원 이번 평가에서 99.74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평균(99.25점)과 종합병원 평균(82.22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우리 병원이 대학병원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중증 응급 질환 대응 역량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박명옥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지역민의 심뇌혈관 건강을 위해 묵묵히 쌓아온 우리 병원의 저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동부권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본격화

우리 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남 동부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응급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지난 7월 16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와 무료건강검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한국심장재단, 순천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하여 개최하였으며,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지질혈증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고위험군에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후 관리까지 제공했다. 이어 원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통해서도 400여 명의 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증상 인식과 대처 요령 등 생활속 예방수칙을 널리 알렸다.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응급 대응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급성기 뇌졸중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허혈성 뇌졸중의 신속한 진단부터 치료지침, 의료진 간 유기적 협업 체계까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조장현 센터장은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예방부터 응급 치료까지 지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대연 간호사



고흥군, 고흥소방서와 응급의료 협약 체결

우리 병원은 7월 14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고흥소방서와 함께 응급의료 이송·수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명옥 병원장과 공영민 고흥군수, 정병철 고흥소방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우리 병원 관내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와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고흥군은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고흥소방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명옥 병원장은 “고흥군 그리고 고흥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뚜레쥬르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1.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30일에 발표한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호남권 종합병원 중에서 몇 위를 달성했는가?
2.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카렐이 고안한 것으로, 혈관 끝을 세 군데로 잡아당겨 팽팽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뒤 꿰매는 이 봉합법은 무엇인가? (5글자)
3. 7월 9일 별관 성심홀에서 2025년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 76명을 위한 뜻깊은 ○○○가 개최되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어린이 인형극 개최
②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③ 전남동부권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본격화
④ 고흥군, 고흥소방서와 응급의료 협약 체결

8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 1.
- 2.
- 3.
- 4.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식단

CJrolio HOSPITAL
상기 병원명인



맛도 영양도 최고! 농치면 아쉬운 여름철 제철 농산물 BEST 4 파프리카, 복숭아, 옥수수, 블루베리



여름은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신체 컨디션의 저하와 식욕 저하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다. 또한 더위로 인해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많아 차가운 음료와 차가운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찾고 균형 잡힌 섭취를 못 한다면 소화력은 약화되고, 여름철 더위로 지친 몸의 회복은 더디게 된다.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수분이 많은 과일 섭취하기

복숭아, 수박, 멜론 등의 여름철 과일은 수분이 함량이 높고,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풍부해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단, 당뇨 등 질환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2. 단백질 식품 챙겨 먹기

단백질은 한꺼번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매끼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위에 지치면 식욕이 없고 차가운 음료나 간단한 면류, 빵류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체중감소, 근육 손실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소화하기 쉬운 달걀, 생선, 두부 등을 활용하면 소화 및 섭취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흔히들 생각하는 장어탕, 삼계탕 등의 음식은 한 끼에 많은 양의 단백질, 지방, 나트륨이 들어와

서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3. 수분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높은 채소 챙겨 먹기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는 여름철 수분 보충 및 체력 충전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 채소로는 상추, 오이, 가지, 열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몇몇 재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지는 껍질의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 개선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분 함량도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이도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붙이면 수분공급, 열감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채소이다.

열무김치로 많이 먹는 열무도 빼놓을 수 없다.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4. 가장 중요한 식품의 안전과 위생 관리에 철저하기

여름철에는 고온·고습의 환경으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 유행하기 쉽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어패류로 인한 감염

(비브리오 등)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여름철 음식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① 냉장고 너무 믿지 않기

냉장, 냉동고는 일정온도로 유지되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도 세균의 번식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가급적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리 정리정돈하여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면 좋다.

② 소비기한 확인하기

대량 구매로 인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대량 구매 시 먼저 있던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자.

③ 실온 보관은 최소화

조리 후 먹고 남은 음식은 실온에 최소한으로 보관한다. 한꺼번에 큰 용기에 보관하는 것보다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을 추천하며, 어렵다면 빨리 냉각시켜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생 관리

사용하는 식기, 조리도구, 주변까지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는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손을 통한 오염을 막기 위해 손 위생도 철저해야 한다.

영양팀 김진아 영양사

335호

7월

가톨릭로키즈정답 & 당첨자(5명)

박서이 | 인공신장실 김현주 | 진료협력팀
황은혜 | 5A 병동 김홍주 | 특수검사팀
김효엽 | 서한실업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시설관리팀입니다.

- 우리병원은 지역 내 병·의원 관계자들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진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6월 25일 4층 요셉룸에서 개최했다.
- 재활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심장·호흡재활치료는 올해로 몇 년 차를 맞았는가?
3년 차
- 심방세동 치료에서 고전압의 전기 펄스를 이용해 심근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비열적 방식의 시술 이름은 무엇인가? (힌트: 6글자) 펄스장 절제술
-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 신입간호사의 새로운 여정
 - 차세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가톨릭 치유 정신 되새김 '정재우 신부 초청 강연' 성료
 - 가정간호사업팀, 환자의 삶 속으로 스며들다

이달의 기부 천사

김종우 야고보 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20년 전 응급 스텐트 시술로 새 생명을 얻었던 김종우 야고보 님이 우리 병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시술을 앞두고 수도자의 따뜻한 위로와 기도로 큰 위안을 받았던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아 20년 전 저를 돌봐준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김종우 야고보 님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소 성당에서 진행하는 모금 행사부터 치매 어르신 목욕 봉사, 조손가정 후원 등 다양한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 온 그는 "앞으로도 매일 감사하며, 건강하게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종우 님의 발전기금 기부는 20년 전의 인연이 오랜 세월을 거쳐 맺은 결실로써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복음 묵상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방황의 어둠 속에 찾아온 회심의 한 줄기 빛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를 기념하는 미사에서 우리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 미리 기름을 채워 둔 이들만이 신랑을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삶은, 바로 이 '기다림과 준비'라는 복음의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 낸 삶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랜 세월 조용히 채워지던 은총이 마침내 문을 두드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 이후의 삶과 그가 남긴 저서들은, 오늘도 병상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건네줍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열일곱 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난 뒤 마니교와 세속적 명예, 정욕 속에서 십여 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회개를 위해 로마와 밀라노까지 따라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그리고 성경을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읽는 법을 가르쳐 준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가 바로 그 준비였습니다.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펼쳐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아온 이 한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우구스티노는 387년 부활 성야에 아들 아데오다투스, 친구 알리피오와 함께 성 암브로시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머니 모니카가 오스티아 항구에서 세상을 떠났고, 얼마 뒤에는 어린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회심의 은총이 곧바로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깊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391년에는 본인의 뜻과 달리 사제품을 받았고, 396년에는 히포레기우스의 주교로 선임되어 그 뒤 34년 동안 참된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주일과 축일마다 강론을 했고, 예비신자 교리를 직접 맡았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던 430년 8월 28일, 그는 병상에서 도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76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심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상실과 헌신, 그리고 끝까지 이어진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고백록」(Confessiones) —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낱말로 되짚어 쓴 이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평화에 이르지 못하며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책은 그가 은총을 값없이 받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은총론」 —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방황을 끝낼 수 없었던 아우구스티노는, 회심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앞서 베푸신 은총 덕분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박하며 인간이 자기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맞서, 은총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진리를 평생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그를 '은총론의 박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막막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의 삶이 증언하듯, 회심은 언제나 방황과 어둠 한가운데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의 마음이 바로 은총의 빛입니다. 성 암브로시오가 눈물 흘리는 모니카에게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병상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아무리 길고 어둡게 느껴져도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노에게 그러하셨듯,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때에 회복과 평화의 은총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3차 모자
강한 건강 병원
성가롤로병원

YouTube

전남 동부권 의료 베타목!
순천 성가롤로병원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한 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협: 317-0005-2620-81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6.1.~6.30) 고호문, 김상순, 김영진, 김명자, 김영후, 김현중, 나재형, 동성메디스, 박병완 세무사, 박종혁, 서빛나, 엘에스메디칼, 성우메디칼, 제이앤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천우의료기, 최윤영, 최치환, 추태선, 편안한김약국, 효성의의료기, KFTCCMS, 익명 4명, CMS약정자 13명

(2026.7.1.~7.31) 고호문, 김상순, 김영진, 김영후, 김현중, 나재형, 동성메디스, 박종혁, 엘에스메디칼, 성우메디칼, 신광약품(주), 전남병원간호사회, 제이앤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최윤영, 최치환, 추태선, 편안한김약국, 호선약품(주), 효성의의료기, KFTCCMS, CMS약정자 13명,

*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나눔, 다시 세우는 희망 페루 아방까이 마을 수해 복구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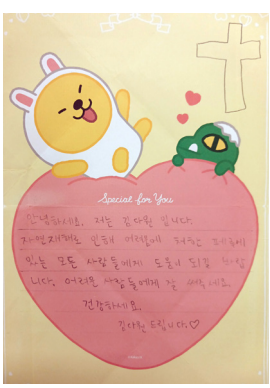
2026년 6월, 이상기후로 인해 페루 ‘아방까이’마을에 폭우가 쏟아졌다. 작은 마을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의 소식은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까리따스수녀회 클레오파 수녀를 통해 우리 병원에 전해졌다.

아방까이 마을은 무너져버린 공소와 10가구가 살아갈 집 그리고 식수·위생 시설 건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병원은 마을 재건을 돕기 위해 바자회와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복지팀은 7월 7일에 바자회를 개최하여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기증받은 품목들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각 팀의 부서장과 수도자 약 서른 명은 직원들이 점심 식사로 구매할 수 있도록 김밥을 만들어 800줄 이상 판매하였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하나로 모여면서, 우리 병원은 7일 만에 \$29,000를 모금하여 페루에 전달하였다. 박명옥 병원장은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손 내밀어 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성금 전달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굳건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다원 어린이의 선행

조례초등학교 3학년 김다원 어린이가 페루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우리 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자 작업치료사의 아들인 다원 어린이는 첫 영성체(가톨릭 신앙의 입문식)를 준비하며 배운 가톨릭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그동안 모아온 저금통에 든 78,180원을 선뜻 내놓았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다원 어린이의 순수한 나눔은, 수해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페루에서 온 편지

성가롤로병원 공동체 모든 선생님께,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동시에 수녀님과 병원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병원장님의 편지를 받고 큰 기쁨 속에서 토요일에 아방까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힘을 모아 섬에 남아 있던 나무토막들을 정리하여 육지로 옮기는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갔습니다.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우리 앞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 감사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주어진 책임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도움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수녀님들과 병원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병원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 페루에서
클레오파 수녀 드림